

금주의 칼럼

생활속에서 감사

어느 노인이 평생 쓴 '감사 일기장'을 손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.
일기장에는 거창한 성공담보다는 사소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.

"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",
"길을 건다 예쁜 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"

손자가 물었습니다.

"할아버지,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만 적으셨어요?"

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

"큰 기적은 한 두번 오지만, 생활의 감사는 매일 찾아온단다.
일상의 작은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, 어느새 내 인생 전체가
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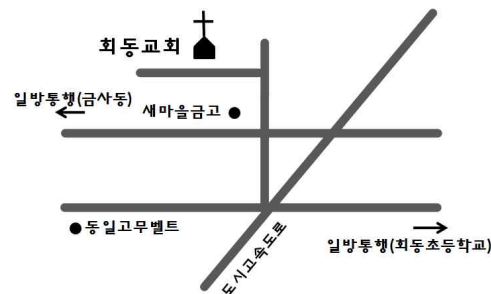
출처: 구글

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

- 타지키스탄 (최**-서** 선교부)
- 국제기아대책(동래지역-선교부)
- 캄보디아 (최** 살롱회)
- 교경협의회(금정경찰서, 선교부)
- 충신대학교 (박성규. 선교부)
- 네팔선교(차**-2남전도회)
- 부루키나파소(김** 3여전도회)
- 한국대학생 선교회(박**지-4여전도)
- 인도네시아(배** 2여전도회)
- 인도네시아(조** 1남전도회)
- 동부산노회: 미자립교회 지원 (선교부, 본회계)
- 삼척소명교회(고진용, 권사회)
- 부산신학교(교단신학교, 기도후원)
-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(금정지역)

교회 집회 안내

예 배 시 간	집 회 시 간
주 일 예 배 오전 11:00	수 요 기 도 회 오후 7:30
오후 2:00	유 * 초 등 부 주일 9:00
수 요 예 배 오후 7:30	중 고 등 부 주일 9:00
새 벽 기 도 회 매일 5:30	청 년 부 주일 12:45



2026. 8 . 16 / 제 48-33
2026 비전 :
" 내가 기도하노라 " (빌1:9)
since 1979.

2시 : 배영조목사

찬양 [1:45-2: 05]

오전 11: 00 / 인도 : 목사

입 레	입례송 / 기원
표 어 제 창	" 내가 기도하노라 " (1:9)
찬 송	1장
교 독 문	28문 (시편 63편)
신 앙 고 백	사도신경
찬 송	438장
기 도	강병욱 장로
성 경 교 독	요한복음 4: 39-42
찬 양	할렐루야 찬양대
말 씀	수가성을 구원한 여인
찬송*봉헌	288장 / 봉헌
봉 헌 기 도	인도자
광고*교제	교회소식 / 성도의 교제
찬 송	620장 (1절)
축 도	인도자

○ 표시는 일어섭니다

입 레: 인도자
찬 송: 93장 / 369장
기 도: 이봉순 권사 (: 김삼예 권사)
성 경: 시편 68: 6
특 송: 3여전도회 (다음: 4여전도회)
말 씀: 고독하지 않는 인생(2)
광 고: 인도자
축 도: 인도자

수요기도회 오후 7:30

: 신명기 강해 / 인도: 배영조 목사

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

말씀: 요한복음 강해 / 인도: 배영조목사
[토 ~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] 1층 교육관

- 본회계 부산은행 073-01-033878-7 회동교회
- 선교 부산은행 112-2335-8311-00 최은경
- 건축 새마을금고 9002-1699-9318-3 회동교회

8 월 봉사 안내

- 담임목사: 배 영 조
- 장 로: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
- 선교사: 최강주*서현아
- 전도사: 허춘성 박옥주
- 지 회: 김태호
- 반 주: 김정숙

차 량		() 김수안 오세영 / (오후) 오세영(온천) 오정수(재송)				
안 내 / 식 당		정경자 / (주방) 이순점 이은심 / (청소) 강형순				
		1주(2일)	2주(9일)	3주(16일)	4주(23일)	5주(30일)
중 식 봉 사		7,8구역	9,10구역	1,2구역	3,4구역	5,6구역
기 도	주 일 예 배	최진수	오정수	강병욱	최진수	오정수
	주 일 오후	김경애	백운자	이봉순	김삼예	남선이
	삼 일 밤	합심기도				

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(회동동) Tel. 522-8771, Fax. 525-7191

홈페이지: <http://hoedongch.org/index.html> [네이버에서 "회동교회"]

교회 소식

-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- *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
- 1 월례회: 오늘은 각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.
시간: 점심 후 자유로운시간 장소: 본당 및 각 전도회실
- 2 생명의 양식란: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. 숙독바람
- 3 행사: 1) 구역장모임: 8월 30일
2) 기아대책: 전국 후원이사 세미나, 8월 31일 청주
3) 동래시찰회행사: 8월 31-9월 11일
4) 제직회: 9월 첫째 주
- 4 특송: 1남전도회, 2남전도회 살롬회(남) /
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살롬회(여) / 자원자/ 순으로 진행
- 5 시찰회: 우리교회가 소속한 동래 시찰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.
행사명: 종교개혁지 탐방 일시: 8월 31-9월 11일
[독일을 중심으로 인접한 나라들 종교개혁지 탐방]
이번 행사에 미자립교회 작은교회에서 많은 참석을 합니다.
시찰회에서 26명 참석 [우리교회에선 담임목사부부, 오장로부부 참석]
- 6 선교소식: 1) 캄보디아 최도연 선교사 잠시 한국에 귀국, 어제 본교회방문
2) 타지키스탄 서현아 선교사 잠시 귀국 다음주에 본교회 참석
- 7 휴가: 이번 주 교역자 휴가: 허춘성 전도사

교역자 여름 휴가

박옥주 전도사: 8월 10일(월)부터 한주간
허춘성 전도사: 8월 17일(월)부터 한주간
배영조 목사: 9월 1일 - 11일

8월 행사 안내

* : 주일학교 캠프 및 수련회	* 기아대책: 전국 후원이사 세미나 8월 31일
* 구역모임: 8월 구역모임은 쉽니다.	장소: 청주
* 경배와 찬양: 둘째주	* 동래시찰회행사: 8월31일부터-9월 11일
* 전도회 월례회: 셋째주일	* 전도팀 전도: 첫째주, 셋째주 전도
* 구역장모임: 8월 30일 3층 교육관	1교구/ 2교구 (7,8월은 쉽니다)
*교역자 휴가: 박전도사: 8월 10일부터	* 여름행사 준비기도회: 각 주일학교
허전도사: 8월 17일부터	* 권사기도회: 매달 넷째 주 화요일(7,8월은 쉽)
담임목사: 8월 31일부터	* 새가족부 : 세미나실, 점심 후 성경공부

향기로운 예물

- ◆**십일조:** 강형순 김복덕 김은성*최승희 김종섭*장은미 김태호 박영수*이순점 배영조*김옥단 신광수
- ◆**감 사:** 김복덕 김종섭*장은미 김태호 배영조*김옥단 주경찬 무명1, 무명2
- ◆**선 교:** 김은성*최승희(2) 1남전도회 김종섭*장은미 이성희*강승경 신광수*권석삼(2) 김복덕(2) 허대환*정경자 이봉순 김영숙 김미경 최춘은 남선이
- ◆**건 축:** 김종섭*장은미 김미경 김영숙 최춘은 김복덕(2) 김은성*최승희(2) 신광수*권석삼(2) 남선이 이봉순 허대환*정경자 이성희*강승경

양육,친교 모임

프로그램	모임시간	모임장소
새가족부	주일 오전 12:40	1층 세미나실
구역장모임	주일 (매달 마지막주)	3층 교육관
돌봄교실	주일 오후예배시간	교육관/ 별관
기초교리반	상 . 하반기(문답교육)	1층 세미나실
성경강해	마태, 시편, 신명기	본당
친교(탁구부)	주일/ 오후예배후	별관

구역 모임 보고

8월 모임

	구역장	모인수	전도	헌금	성경	모인곳
1						
1	이순점				2853	
2	강형순				7040	
3	이은심				6490	
4					9835	
5	김경애				4765	
2교구						
6	이봉순				2107	
7	박광자				3310	
8	이현정				9703	
9	전만주				5357	
10	김종섭				1320	

생명의 양식

08-3 자녀 축복의 중요성

창세기 27장 30-37절

<소중한 사람 세우기>의 저자 게리 스멜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.
그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몇 년을 살았습니다. 그의 할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고 규칙을 어기면 매를 두 대 때렸습니다. 가장 지겨운 규칙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, 이를 어기면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여지없이 매를 맞았습니다.
그는 마음이 언짢았고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식사하시러 오라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다. 그 말을 전하기 아주 싫었지만 또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. 반드시 노크를 해야 했고, 경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
그런데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는 순간, 그는 방문이 열린 것을 알았고, 슬쩍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방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할아버지가 침대 끝에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.
더욱 충격적인 일은 할아버지의 울음이 자기를 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.
바로 그 순간, 할아버지가 그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. "너를 때리고 마음이 아팠단다." 그리고 그를 침대 곁에 앉히시고 큰손으로 감싸안고 말씀하셨습니다.
"너와 네 형이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내 생애를 바치겠다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느냐?
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! 네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!"
저자의 말에 의하면,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
바로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. 그 축복의 말씀은 그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.